

부활 제 5 주일

제 1 독서 : 사도 9, 26-31
제 2 독서 : 1요한 3, 18-24
복 음 : 요한 15, 1-8

숲 정 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5, 5).

강론

“열매 맺는 삶”

김태윤 신부 / 송천 천주교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고 기쁨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셨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평화는 갈등과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일깨워주셨다. 다시 말해서 갈등과 아픔을 통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가르쳐준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며 교회의 신비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의 몸은 유기적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서로 연결되고 상통해야만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 교회는 바로 몸과 같다. 교회를 이루는 신자 각자는 서로 엮여 있기에 늘 통한다는 가르침이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영양분을 받을 수 있고 생명력을 지니며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명의 원천인 하느님께 연결되고 일치될 때만이 참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열매 맺는 삶이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에 목적과 동기를 설정한 삶을 뜻한다.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요한 15, 7). 또한 우리의 삶이 희생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느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와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 바울로의 소명도 우리에게 이런 면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는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지난날의 세속적인 영광이나 명예를 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 바울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데살 5, 16-18).

소리

“누구 탓인가?”

세상이 온통 어수선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그것은 언일 터지는 사건들이, 그것도 아주 심각한 일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매듭지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수서 특혜 비리만 하더라도 기초의회선거에 휩쓸려 이제 서서히 그 꼬리를 감추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식수 원인 4대강 오염 실태도 고르비 제주도 방문 특종 기사에 밀려 매스컴의 어정쩡한 기획 특집으로나 그 명맥을 보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런가 하면 아예 한 차례의 반짝 기사로 끝나버리고 마는 사건들도 술하게 많다. 그 하나가, 지난번 4·19 의거 기념일에 있었던 학생들 시위 사태에 원광대학생 등 대학생 들이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아 중태에 빠진 일이다. 시위 진압에 따른 인명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던가! 그런데도 그때 뿐이었다. 정말로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러다 보니 미치도록 답답한 심사가 누적되고, 이제는 허망한 마음에 입을 열 엄두가 나질 않는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만사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가 보다. 이는 참으로 무서운 전염병이 아닐 수 없다. 어쩌다 이리 되었는가?

카인이 제 아우 아벨을 쳐죽였을 때, 하느님이 아벨의 행방을 물으셨다. 이때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땀다. 예전에 우리도 이 시대의 탓을 몇몇에게 돌렸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 탓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다행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꾸미고 저지른 몇몇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甲]

숲정이 산책



돈만 벌면 OK ?

5월1일 노동자 성요셉 축일 - 세계 노동자의 날에

“노동자의 한숨 한마당”

요즘 엄마의 젖은 무척 맛이 없어졌다. 예전에는 구수하고 약간 달짝지근했던 젖이 이제는 시큼텃텃하고 쓰기까지 한다. “바빠 죽겠는데 빨랑빨랑 먹지 못해.” 가뜰이나 맛도 없는데 엄마는 내게 역정까지 내는 것이 아닌가! 하긴 요즘 엄마의 젖맛이 달라진 이유를 나로서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오늘 아침에 엄마는 싸움을 두건이나 치루었다. 한 번은 아침에 아빠가 출근할 때였다. “그놈의 노조활동이니 파업이니 제발 좀 그만 때려 치울 수 없어요? 가뜰이나 쥐꼬리만한 월급에... 남들은 임금인상인데 어쩔때 나설 때 묵묵히 잔업 철야하면서 제 실속 다 챙겨 놓는데, 사람은 그저 약게 살아야 해요. 아빠는 손가락을 땅소리 나게 놓고는 별떡 일어섰다. “나더러 어용노조 하란 말이요?” 엄마의 두번째 싸움은 집주인과의 싸움이였다. 아니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꼴이였다. 집주인은 전세 안 올려주려거든 방 빼라고 딱딱 고함을 쳤고 엄마는 설설 기였다. 집주인이 가고 난 다음에 엄마는 다시 방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글썽였다. “물가는 나날이 치솟지, 방세는 올려달라고 하지, 아이고 지켜워 내 팔자야!”

위 이야기는 한 노동조합의 노보에 나오는 ‘노동자 한숨 한마당’ 글중의 일부이다. 콩트 형식으로 쓰여졌지만 우리 주변의 노동자 가족의 삶의 이야기이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상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며칠 전 신문에 집값이 없어서 식구가 한꺼번에 동반 자살한 사실이 보도되어 충격을 주지 않았던가!

돌아올 5월 1일은 노동자 성요셉 축일이며, 8시간 노동제 확립을 기념하기 위한 102주년 되는 세계 노동자의 날이다. 해마다 돌아오는 날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00년 전의 상황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호남고속도로에 위치한 여산휴게소에서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조간부 2명이 구속되고 12명이 집단 해고되는 불의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2년 전만 해도 하루 노동시간이 16시간이었던 것이 노조가 결성되어 1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인원보장이 되지 않아 일이 더 힘들어져 회사측에 인원보장을 요구하였다. 회사는 이의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이들을 업무 방해로 오히려 구속 및 해고시킨 것이다. 노동자들의 호소로 몇몇 신부님들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회사측에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회

사는 “제3자는 나서지 말라”며 대화를 거부하였다. 재판과정에서 판사는 노조의 정상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여 현대판 빌라도의 법정을 재현시켰다.


이처럼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현실로 엄연히 존재한다. 노동자와 사용자-정부, 양편은 평등하지 않다. 정치자금과 권력욕으로 모인 집권 정당, 부동산 투기와 공해 방출, 향락산업에 몰두하는 전국경제단체총연합회 등등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단결(?)과 집단 행동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온갖 사회악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스크와 언론이 때때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기도 한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관한 것이라면 수십년간 다른 사회집단보다도 더 많은 왜곡과 비방을 받아왔다. 임금인상에 대한 시비, 경제위기의 책임소재, 경영권 침해에 관한 비방... 모든 거짓 주장의 배후에는 ‘노동자는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반그리스도적인 가치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곧 노동에 대한 천대이며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노동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노동자들이 대량 구속되고, 불법 해고되는 폭력에 대해서 무감각해 하는 것이다. 더구나 교회 내에서도 노동의 가치나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위선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노동이 자 본보다 우위에 있으며, 교회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천명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들을 고발하여 인간과 사회의 참된 진보를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동자는 누구이며, 그리고 신앙인의 소명은 무엇인가?’ 하는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팍팍한 경쟁과 배타심의 산업사회, 이웃과 동료가 없는 소외된 인간관계, 반그리스도적인 낡은 사회는 사람을 메마르게 한다.

노동하고 창조하는 사람들의 인권에 관한 관심과 함께함은 신앙의 새로움, 즉 회개와도 같다. 노동자와 함께한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세계의 창조과정, 즉 하느님 나라의 건설과정에 동참하는 것이다.

천주교 전주교구 노동사목
이리 성요셉 노동자의 집 제공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눌부보쌈**

오재천 (안드레아)
정봉교 (마카렐라)
호지동 오진아파트 앞
☎ 223-0297~8

축/ 개 점

생활속에 동화를 불러냅니다
원목가구 · 생활용품

 **중앙동대리점**

관동로 진선미 꽃집 옆
☎ 84-8725
범 덕 배 (口도)

우리편두

모범업소(조리사의 집)

박길섭 (조카리아)
함숙 (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중앙성당앞)
☎ 85-8848

양재 · 한복 · 흥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앞 · 민정당사앞
☎ 86-2715

잡 관 /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은 세상의 희망’이라는 주제 아래 교구의 ‘성서교실’이 지역별로 성황리에 그 개강식을 마쳤다.

성서교실 702명, 통신성서 439명 모두가 1,181명(전주 432명, 이리 178명, 군산 132명, 그외 지역 439명)이라는 많은 수가 금번 교구에서 실시하는 성서교실에 입학한 셈이다. 정말 커다란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하면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이토록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에 우리 교구의 앞날에 커다란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정말 한가한 사람은 시간을 낼 수 없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낸다는 것은 그 보람과 의의가 더 큰 것이다. 일주일에 단 한 시간이라도 그분 앞에 다소곳이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번에 시작한 제1단계 성서교실은 하느님의 구원의 경륜,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맥과 윤곽을 정확히 배우고 무엇보다도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느님의 말씀에 진속되는 과정이다.

좋은 기회, 입학을 축하드리면서 이제 시작된 성서공부의 첫걸음이 힘찼던 그만큼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끝까지 잘 마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이 좀더 생기있고 보람되고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지길 바란다.

- 사목국 성서부 -

교 구 소 식

1. 성서교실: 전주지역(가톨릭센터) ① 오전반-수요일 오전10시, 금요일 오전10시 ② 오후반-금요일 오후8시, 군산지역(둔율동 성당) ① 오전반-화요일 오전10시 ② 오후반-금요일 오후8시, 이리지역(신동 성당) ① 오전반-수요일 오전10시 ② 오후반-수요일 오후8시.
 2. 군산, 옥구, 이리지역 사목회 임원·공소회장 연수: 5월4일-5일 천호피정의 집, 4일 오후4시 가톨릭센터에서 버스로 출발.
 3. 초·중·고 교리교사의 날(체육대회 및 시상): 5월19일 9시-17시 해성학교 윤호관.
 4. 전주교구 어린이 백일장·사생대회: 5월26일 10시-15시 천호 성지.
 5. 교구 율트레이 준비를 위한 본당 간사 모임: 4월28일 오전11시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6. 성빈첸시오 아 바울로회 교구 이사회: 5월4일(토) 오후2시 송천동 성당 74-1004.
 7. 가톨릭 문우회: 5월4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별관 1층 소강당.
 8. 파티마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5월2일(목) 10시-16시 덕진 성당, 미사도구, 도시락 지참.
 9. 전국 가톨릭노동청년회 모임: 5월12일 11시-17시 대전 성모여고 운동장, 출발-중앙 성당 8시30분, 주현동 성당 9시30분.
- ※ 축! 영명: 3일(성필립보, 야고보) 성민호, 김동준, 박병준, 한병헌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 **성소모임** 성바로말수도회: 5월5일 오후2시, 성바로 서원 2층(0652)252-3398.
- 살레시오수녀회: 5월5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0681)33-2578.
- 사랑의 씨튼수녀회: 5월5일 오후2시, 동산동 성당 수녀원(0652) 212-3233.
- 까리다스수녀회: 5월5일 오후1시30분, 덕진 성당 수녀원(0652)72-122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13)우리 주변에 공해를 일으키는 곳은 없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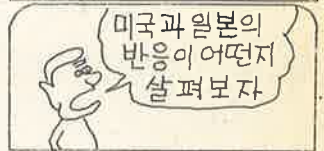
지역 내에 폐수, 유해가스, 매연 등, 공해를 유발하는 곳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그들 자신과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곳을 찾아 적절한 조치를 취합시다.

주단·침구·훈수 전문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연
☎ 84-7294

신선한 생맥주와 함께 생활의
맛과 여유를 찾으십시오.
카이저호프
*아르바이트생 모집(신자 환영)
☎ 85-8801
(한성여관 사거리)

**천주교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제주도에 오셔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최소한 1일 전에 연락바람.
연락처: (064) 55-5151
(사도회 사무실)

요심이 (925) 김병오



사무장 모집
지역: 1. 영세후3년이상된 남자
2.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3. 병역필자
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2. 영세증명서 1통 3. 면허증 사본 1통
4. 본당신부 추천서
미가입: 1991년 5월 12일
면접일: 1991년 5월 15일 오전 11시
부안 천주교회
☎ (0683) 84-1333

사람을 찾습니다
이봉욱 (베드로) 34세
연락처: 85-7616(자택) 84-3222(전동 성당)
어머니가 애타게 기다립니다.

현대기억 전복사진학원
● 상업 사진 ● 사진 교육
● C·F 제작 ● 슬라이드 제작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128-15
☎ (0652) 82-0700, 72-1174
최용부(비오로), 이수현(수선나)

백제 세차장
세차 및 오일 에어크리너 교환
대학병원 사거리 전주농조 앞
☎ 74-9006
안상우(로마노)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예수승천 대축일 남전주지구 합동 야외미사 : 5월 12일 일요일 장소 : 우천국교 운동장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보좌신부 82-9661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설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송 남

1. 가정방문 : ① 30일 전9시-인후11, 중노1가13반 후2시-인후10반, 중노1가12반 ② 5월2일 후2시-인후9반 ③ 3일 전9시-인후7반, 중노1가11반 후2시-인후6반, 중노1가10반.
2. 사목회 상임위원회 : 오늘 저녁8시30분.
3. 모임 : * 반회장 모임-2일 전10시30분(매월 첫목요일로 변경)
* 성시간-2일 저녁7시30분 * 성심회 월례회-1일 어머니미사후.
4. 5월 성모성월 기도는 평일미사후 깃세마니동산 앞에서함.
5. 금주 청소 : 중노1가5·6반 차주청소-중노1가7·8반.
6. 성소주일 2차헌금 : 206,270원
☐ 지난주 봉헌금 : 836,160원 ☐ 교부금 : 671,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1. 오늘은 교부금 납부주일. * 성전보수헌금 바람.
2. 생명공동체특강 : "생명공동체의 삶" - 김승오(농민회지도 신부) - 공식미사중에.
3. 울트라아 : 오늘 공식미사후.
4. 설마리아 뿌리아 : 오늘 오후2시.
5. 첫영성체 신청 : 사무실, 5월부터 교리시작.
6. 사목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 * 5월 성모성월 : 각Pr. 성모당원 세기도 : 저녁미사후.
7. 구역봉사자 모임 : 다음주 8. 구역장 반장모임 : 5월9일(목) 11시. ☐ 지난주 봉헌금 : 1,611,290원
금주보수비헌금액 : 673,100원 현재보급총액 : 218,609,082
관주보수비헌금액 : 없음 현재신입총액 : 253,119,618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탁

1. 회장단회 : 오늘 저녁미사후.
2. 밀알회 : 5월1일(수) 저녁6:30분.
3. 자모회 : 5월2일(목) 모악산단합대회.
4. 성체강복 : 5월2일(목) 저녁미사후.
5. 울트라아 : 5월4일(토) 저녁미사후.
6. 첫영성체교리 : 5월4일부터 매토요일 오후2:30분(5월, 6월). 첫영성체자 어머니모임 : 5월3일.
7. 뿌리아 : 5월5일 오후2시. 8. 대건회 : 5일 공식미사후.
9. 사목회 : 5일 저녁미사후.
10. 가정방문(오후2시부터) : 7일(화) 중앙동 1반, 8일(수) 중앙동 2반, 10일(금) 완산동. * 여성분과 및 구역분과 단합대회에 협조해주신 제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성당청소(5월4일) : 이땅의 빛, 밝히오리다Pr. 금주 전례 : 해설-오교성 독서 * 봉헌-입병헌, 최옥남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517,530원 ☐ 교부금 : 988,400원

1. 성모의 밤 : 4일 후7시30분. * L. M. Pr. 별로 봉헌 및 개인봉헌.
2. 장요셉 원장수녀님 영명축일 : 1일 축하식-어머니미사후.
3. 유아세례 : 4일 후2시. 대·부모 정해서 미리 사무실에 접수.
4. 성시간 및 성체조배 : 2일 후7시30분, 구역반·회장과 함께.
5. 성서교실 : 매주 금요일 전10시, 후8시(버스 9시30분 출발).
6. 가정방문 감사예물 : 1,771,000원 신축헌금으로 봉헌 합니다.
7. 회의 : 울트라아-공식미사후, 뿌리아-오늘 오후2시30분, 성심수녀회-1일 어머니미사후, 기도회-매주 화요일 후8시.
8. 천사회 일일찾집 : 29일 전10시~후9시, 장소-샌타 휴게실.
9. 축! 혼인 : 5일 12시 신랑-이진태, 신부-류인하(소피아).

☐ 지난주 봉헌금 : 702,800원 ☐ 교부금 : 977,01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중 석

*** 회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 5월은 성모 성월 입니다.

1. 성모회 :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 4일(토) 저녁미사후.
3. 뿌리아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교부금 납부의 날 : 매월 첫주(다음주).
5. 금주 성당청소 : 신비로운 장미.
6. 금주 전례 : 해설-이승복 독서 ① 양대환 ② 최영숙
봉헌-김단오, 김병열 씨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송봉덕 독서 ① 이우동 ② 이춘봉
봉헌-강문옥, 황대호 씨 부부.
7. 예비자 교리 : 공식미사후, 회의실.

☐ 지난주 봉헌금 : 222,550원 ☐ 교부금 : 100,000원
☐ 2차헌금 : 82,730원

1. 사목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
2. 자모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
3. 청소년담당 : 금주-동정마리아Pr.
다음주-겸손하신자의 모후Pr.
금주 전례 : 최정순 독서 * 봉헌-김정자, 양노철
차주 전례 : 김용부 독서 * 봉헌-김옥희, 김태진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중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 오늘은 부활제5주일 ! (오늘은 성모성월입니다).

1. 회의 : ① 뿌리아-오늘 오후2시 ② 사목회-5월1일(수) 저녁미사후 ③ 자모회-5월7일(화) 오전10시30분 ④ 성심회-5월13일(월) 오후2시.
2. 모임 : ① 울트라아-5월8일(수) 저녁미사후.
3. 알림 : ① 새벽미사시간변경-5월5일(일)부터, 새벽5시로 변경함 ② 자모회 단합대회-4월29일(월) 오전10시 장소-신리 어두리저수지. 뜻있는 어머니들 많은 참석바랍니다. ③ 첫영성체교리-5월7일(화)부터 매일 오후5시, 대상자 전원 신청바랍니다(국민학교 3학년이상) ④ 반모임-14반 5월10일(금) 오후8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 551,700원 ☐ 교부금 : 610,000원
☐ 2차헌금 : 185,750원

※ 교부금 신입액 : 99,943,000원 669세대

1. 가족사건1장, 가족 전체 주민등록번호준비(사무실에 내주시기바람).
2.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 ① 일10:30 ② 목 후7:30 ③ 금 10:40 ④ 중고생 토 후6시. * 예비자를 적극 인도합니다.
3. 호자ME가족 모임 : 5월2일(목) 후8시(교육관). 4. 지속적인 성체조배에 적극 참여합니다.
5. 안나회 : 다음주 11시 미사후(교육관).
6. 구역봉사자 모임 : 5월1일(수) 오전10:30.
7. 성당청소 : 게시판 참조.
8. 91년도 교부금 신입총액 : 원 세대-빠짐없이 신입합니다.
8. 사순절 성미봉헌 240kg 사순절 돼지 저금통 봉헌액 : 2,736,610원(484세대) 갑사합니다.
9. 89, 90년도 사진 찾아가세요.

☐ 지난주 봉헌금 : 961,110원 ☐ 교부금 : 1,936,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홍 두

1. 특별강연 : 오늘 공식미사중(빈첸시오회 정신 및 활동).
2. 사목회, 요셉회, 사라회, 막달레나회 : 공식미사후.
3. 5월 성모성월 : 미사30분전 묵상 및 묵주기도(게시판 참고).
4. 반미사 : 30일(화) 아파르트서 1반-오후2시 5.2(목) 아파르트동·3반-오후3시, 5.3(금) 아파르트 서·2반(오후8시).
5. 성소주일 행사 협조에 감사합니다.
6. 야외 합동미사 및 나눔의 날(미당 예고) : 5월12일(일).
7. 천사봉사 : 추광3단지 아파르트 동편.

☐ 지난주 봉헌금 : 379,700원 ☐ 교부금 : 802,000원

1. 반석회, 요셉회 : 공식미사후. 2. 나눔의 주일입니다.
3. 들담회 : 오후6시. 4. 첫 영성체 교리신청 : 5월1일 부터.
5. 공소미사 : 3일(화) 저녁8시 안심공소.
6. 반회미사 : 30일(화) 저녁8시 롯데3반, 1일(수) 롯데5,2(목) 롯데7반.
7. 성모의 밤 행사 : 5월1일-1부-미사, 2부-성모님께 봉헌식. 차주 모임 : 뿌리아, 사목회.
- 신축헌금 : 총신입액 : 92,710,000원 봉헌액 : 680,000원
금주 전례 : 해설-박명래 독서 ① 임혜주 ② 윤경숙
기도① 감성주 ② 임원주
차주 전례 : 해설-김광남 독서 ① 김용신 ② 박순자
기도① 이태영 ② 박명숙

☐ 지난주 봉헌금 : 826,180원 ☐ 교부금 : 2,574,000원
☐ 2차헌금 : 509,230원

* 호성동성당 신축기금마련을위한 바자회 : 5월24일~27일 장소-인후동 성당